

흡연의 법적인 규제에 대해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반대합니다.

공공장소라 하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의 규제는 꼭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청소년의 확대되고 있는 흡연율을 우려해 금연의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상인 배우들이 텔레비전에서 멋들어지게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자극시킵니다. 이성적인 가치관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때문에 대중매체에서의 흡연모습은 가능한한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공공장소인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특히 담배를 많이 씹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남자가 대부분 많습시다만, 여자분과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 역시 여자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담배를 피지않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에 의한 비흡연자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하루종일 담배냄새를 맡고, 온몸에 담배냄새가 뱃니다. 흡연자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은 흡연했을 때의 30%정도에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흡연이 주는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적인 모든것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가벼운 법칙금정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좀더 강력한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도 가능한한 흡연의 방송은 금지해야만 합니다.